

第63回

서울特別市城北區議會
本會 議 會 議 錄

開會式

城北區議會事務局

日 時 1997年9月25日(木) 午前10時

第63回(臨時會)開會式順

1. 開 式
1. 國旗에 대한 敬禮
1. 愛國歌齊唱
1. 殉國先烈 및 戰歿護國勇士에 대한 默念
1. 開會辭
1. 閉 式

(司會：議事係長 表錫龜)

(10時02分 開式)

○議事係長 表錫龜 지금부터 제63회 성북구 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대한경례)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전주곡에 따라 1절만 제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전몰호국용사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묵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議長 趙基燦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불철주야 구정발전을 위해 조고가 많으신 진영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한자리에서 뵙게 되어 매우 반갑고 고맙습니다. 계절은 어느새 추분을 지나 찬이슬이 내리는 한로가 성큼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간에 의정활동을 통해 구민을 위하고 지역발전에 보탬이 되는 많은 일들을 진지하고 깊이있게 논의하였으며, 또 오늘 다시 이렇게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속에서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보여주신 지역에 대한 열의와 의지에 대한 노력은 전국 어느 의원에 뒤지지않는다 해도 과장된 표현이 아닐 것입니다. 동료 의원여러분 지난번 우리는 정기회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대비하여 2박3일간의 의원 세미나를 가진 바 있으며, 그간에 지역의 문제와 의정연구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이러한 의원 여러분들의 열성과 관심속에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정착되어 갈 것이며, 특히 우리 성북구 주민에 의한 주민의 대의 행정의 뿌리를 내려갈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지방의회가 구성된지는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은 우리의 지역 주민들이 성숙되어지는만큼 우리에게 거는 기대 또한 절적으로나 양적으로 다양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주민 개개인의 개인적 요구에서부터 지역 전반에 걸친 문제들로 인한 이해관계 등 많은 일들이 우리들 앞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구민 각계각층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우리는 수용하여 토의하고 해결해야 할 것이며, 진실로 구민의 복지를 위하고 질 높은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서로 머리는 맞대로 사심없는 지역봉사자로서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다원화된 사회에서는 주민의 일

상생활과 복지 및 지역 경제에 관련된 주민의 의사를 민주적인 장에서 해결하는데 지방의회의 존재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를 실시한 목적이 무엇이었는가를 생각할 때입니다. 주민의 의사를 수렴하여 정책을 결정하고 이를 수행할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행정의 집행을 감시하므로서 주민에게 행복하고 건강하며 문화적인 생활을 보장해 주는 현대 복지국가의 이념 실현이라는 큰 의미를 생각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함께 미래에 대한 희망과 꿈을 키워나갑시다. 너와 내가 따로 없는 우리의 공동체에서 저 혼자만의 지역의 발전이나 지방자치의 정착과 성공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제63회 임시회는 다른 어느때보다도 중요한 안건이 많이 다루어질 예정입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지금까지 해오셨듯이 이 모두가 구민을 위한 사명이요, 의원의 본분을 다하기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번 회기에도 의욕과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개회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議事係長 表錫龜 이상으로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 되겠습니다.

(11時08分 閉式)